▶▶ 매일 INDEX

4면
전주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음 4월 17일) 제2787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13회 다문화 어울림축제 기념식이 27일 전주MBC 공개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다문화가족·도민 등 5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세계인의 마음 전북에 담아

전북도 '다문화 어울림축제' 비대면 개최

인종·문화 격차 해소
세계 시민의식 다짐
다문화사회 의견 챌린지
삼행시 짓기 등 마련

국적과 인종, 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전북 속 세계를 탐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전북도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다문화가족과 도민 등 5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다문화 어울림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고, 도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내 각계각층에서 생각하는 다문화사회 의견 챌린지, 유공자 시상, 다문화 삼행시 짓기 이벤트, 다문화가족 소통 토크, 전통의상 패션쇼 등의 프로그램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도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문화가족까지 즐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시·군별 다문화 퍼레이드를 대신해 도민이 생각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견 챌린지를 시작으로, 인종과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다지도록 도입 부분을 장식했다.

이어, 중국과 필리핀이 고향인 모친을 둔 송민아, 김형기 학생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로 개회를 선언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이중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결혼이민자 등 20명에 대해 도지사,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다문화'를 주제어로 주요 내빈과 온라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마련했다.

송 지사는 "다~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화음의 고장, 전라북도입니다"라는 재치 있고 친근한 삼행시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주요 내빈과 다문화가족간 안정된 한국 생활 정착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주요 내빈에게 다문화가족이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요청했고, 한국 생활에서의 따뜻한 응원 메세지가 화면을 통해 직접 전달되는 훈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어울림 예술제'에서는 시·군별로 다문화가족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선보였다. 비대면 공연이었지만, 결혼이민자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우리나라 전통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전통춤과 줌바댄스, 어린이 방송댄스 등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즐기는 장이 됐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흥당무 로이' 인형극 공연을 유튜브 채널로 공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요즘, 재미있는 공연 문화를 체험하고 다름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을 이웃으로 보듬어 준 도민의 따뜻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다양성이 전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中 구이저우 빅데이터밸리' 성공사례 공유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발전방안 마련 위해
도, 빅데이터 발전 교류 포럼… 전주시-구이양시 우호 협약

전북도가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빅데이터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중국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밸리 성공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중국 구이저우성과 함께 '데이터가 창조하는 가치, 데이터가 움직이는 미래'라는 주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도에서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빅데이터 전문가 등 6명이, 구이저우성은 장홍 인민대외우호협회 전직부회장, 이광호 주청두한국총영사, 김상광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 지역의 부서장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현황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전주시-구이양시 빅데이터 업무협약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와 구이저우성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현황에 대한 기조연설과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주제발표를 했다.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이 '전라북도 빅데이터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판 뉴딜과 전북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전북도에서 역점 추진할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후지안화 구이저우성 빅데이터 관리국 부국장이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 산업 성과와 더불어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혁신 발전구 조성,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시범지역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전북은 '데이터 정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구이저우성은 '빅데이터 인재육성모델 혁신'과 '1 클라우드, 1 네트워크, 1 플랫폼 구축 및 대표 활용사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와 구이양시는 빅데이터 발전 촉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역은 이날 빅데이터 발전현황을 발표하고, 4차 산업시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시대를 목표로 하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주시와 구이양시는 우호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야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 지역간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중국 빅데이터 밸리의 성공사례를 연계, 전북의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중국 구이저우성과 함께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포럼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 아·태 마스터스, 지역별 쿼터제 운영'

조직위, 대한체육회 방문
대회 성공 위해 생활체육인
대상 홍보 강화·적극 협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위원장 송하진)의 본부장급 이상 관계자가 27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실무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은 아태 마스터스대회에 28,000여명의 국내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준비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협의를 통해 먼저, 국내외 선수모집과 경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별 쿼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회 후원수익사업 효율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와 연계해 모집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하편 이날 면담에 함께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이강오 아태 조직위 사무총장은 앞으로 양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조하편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은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